

공개란

캐치프레이즈

죽은 자는 말이 없나?

이름

이유란

성별

남성

나이

18세

생년월일

1998.07.06

외관



이미지 파일: <https://drive.google.com/file/d/17BUiugWYqAbDSi6HxHZAYJUXQvkJO7v7/view?usp=drivesdk>

하얀 머리 — 하얗에 푸른색이 살짝 섞인 느낌의 색. 그래봤자 그림자 질 때만 푸른 끼가 돌 뿐, 빛 아래서는 새하얗기만 하다.

좋지 않은 머리결 — 머리카락 사이에 손을 넣으면 까끌까끌한 느낌이 난다. 술이 많은 편은 아니라 엉키지는 않는다는게 그나마 다행인 점.

단정한 짧은 머리 — 직모에 적당한 길이의 머리카락. 거지 같은 머리결을 어떻게든 정리해보겠다고 나름 열심히 정리한 테가 나는 헤어스타일. 그러니 약간의 뻗친 머리는 애교로 봐줄 수 있을 정도. 유일하게 정돈되지 않은 부분은 앞머리 뿐. 앞머리가 눈을 가릴 만큼 너무 길다. 도통 자를 시간이 없어서 눈만 안 가리게 쓱쓱 갈라두었다.

나른하고도 예민한 인상 — 멀리서 보면 나른, 가까이서 보면 예민. 처지는 눈매, 짙은 아이라인, 높지 않은 콧대, 두툼한 볼살, 작은 입은 얼굴에 나른한 윤곽 - 내지는 큰 빼대를 만든다. 인상에 일말의 예민한 느낌을 남기는 지점, 그러니까 처진 눈이 사실은 끝이 뽀족하게 마무리되는 날카로운 눈매라는 사실은 빼대만 보고 알 수 없다. 그래서 가까이 가야만 보이는 예민함이다.

푸른 눈동자 — 짙한 파랑. 정말 파란波瀾이라도 일으킬 것 같이 파란 색. 눈동자는 둥글다. 그 안에 박힌 유일한 하얀 초점까지 둥글다.

둥그란 안경 — 얇고 테의 안경. 둥근 모양이기 때문에 커보인다. 도수는 아주 살짝 높은 편. 언제나 안경알이 깨끗하도록 잘 간수한다.

변변찮은 코 — 콧대가 높지는 않다. 그렇다고 낮지도 않지만. 어디 가서 자랑은 못해도 욕은 듣지 않을 법한, 그냥 적당한 콧대.

말랑한 볼살 — 아직 젖살이 빠지지 않은 모양인 볼. 덕분에 얼굴형이 날렵하게 이어지다가 볼살에서 툭 튀어나온 모양새다. 볼주머니라도 있는 모양. 이 덕에 종종 귀여워보이는 인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슈뢰딩거의 입 — 겉으로 보면 크게 벌려봤자 눈알 사탕 두개 들어가면 딱 찰 것 같은 입. ... 근데 입술만 작을 뿐 막상 입 안쪽은 넓다. 최대 기록치는 눈알 사탕 여섯개.

신장과 체중 — 171cm, 62kg

정석적인 교복 복장 — 용의 복장 규정을 다 지킨 것만 같이 모범적인 복장 착용.

구김 없는 와이셔츠 — 다리미로 짹짹 핀 것 같은 와이셔츠. 주말마다 매번 다려두기라도 하는 건가? 게다가 단추도 목 끝까지 잠겼다.

제대로 묶인 타이 — 목 끝까지 당겨 묶은 넥타이. 갑갑하지도 않은 건지...

겹쳐 입은 마이와 조끼 — 교복 중 무엇 하나 빠뜨리지 않겠다는 집념이 보이는 마이와 조끼 차림. 덕분에 와이셔츠의 흰 부분이 다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는다. 당연히도 명찰 또한 잊지 않았다.

매번 바뀌 신는 신발 — 실내화와 실외화의 명확한 구분. 실내화는 흔히 보는 하얀 싸구려 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질긴 천 재질의 고급 실내화. 실외화는 단정한 캔버스화.

전체적인 느낌 — 단정하고 깐깐해보인다!

특이사항

역사에 미친 고지식 폰대. 예의범절 따지는게 무슨 사군자 그리는 조선 시대 문인인 줄...

그 외

이름 — 한자로 쓰면 柳蘭. 버들 유 자에 난초 란. 성씨는 전주 이씨. 정확한 파나 향렬은 모름에도 불구하고 조선 왕조 핏줄이라고 강력히 주장 중.

성격

예민과 맹함의 공존 — 예민과 맹함이 주기성을 갖고 반복된다. 지속적이고 강박적인 예민이 결국 맹함을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고 감각적인 나머지 뇌에서 환경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여러가지 일을 빠르게 계산하다가 오류가 나 멈춰버리는 컴퓨터처럼, 어느 순간 퓨즈가 나가버리는 듯이 멍해진다. ... 아니, 사실 대부분의 시간이 퓨즈가 나간 것처럼 멍하니 보낸다. 매순간을 예민하게 사는 부작용으로 매순간을 멍하게 살게 된다니, 어찌 이런 모순이 다 있을까!

선택적 혹은 일시적 집중 — 그래서 집중하고자 할 때는 누구보다 깊이 집중할 수 있다. 사람을 멍하게 만드는 과도한 정보량의 유일한 이점이랄까... 한순간 동안 하나에만 제 예민을 쏟아 심히 집중할 수 있다. 그럴 때마다 평소와 다른 탐구자적 행태를 보인다. 물론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고, 그 이후에는 평소보다도 더 멍하니 지내게 되지만. 그래서 평소에도 다른 과목은 전혀 공부하지 않고 좋아하는 역사 교과만 공부하나 보다. 아무튼 이런 선택적, 그리고 일시적이나 폭발적인 집중력 덕에 유란의 사고 체계 기저에 깔려 있는 총명함을 구축할 수 있었던 듯 싶다.

고지식하고 혁명가적인 유교 끈대 — 단정과 예의범절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선비답게 몸과 마음을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천박한 행동거지는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으며 툭툭대고 뽕뽕대는 경향도 없잖아 있다. 한마디로 말해 끈대. 그런데도 특이한 점은 혁명가적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유교 덕목은 군위신강 군신유의가 아니냐고 물으면 틀린 것을 지적하지 않고 묵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도리의 위반이라고 답한다. 즉, 틀렸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다면 지적을 듣는 청자가 선생이든 선배이든 상대를 가리잡고 뺨는다는 뜻이다.

애정 어린 행동들 — 살가운 성격은 아닌데도 미워하기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 자꾸 애정이 엿보이는 행동을 한다. 예를 들어 체벌로 다친 친구의 상처에 약을 발라준다던가, 누군가 자고 있으면 커튼을 쳐준다던가, 하는 행동들.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 살갓이 닿는 일도 꺼리지 않는다. 가리는 대상 없이 누구에게나 다 이른다. 마치 모두를 아끼고 애정하는 것처럼. 보다보면 상대를 소중히 생각한다는 것이 티나는 행태들을 보인다.

좋아하는 것

죽은 시대 — 과거 너머로 죽어버린 세월들과 그의 유산들. 고대의 그리스와 알렉산드리아가 번성하던 시기부터 예수가 태어나 달력이 바뀌고, 과학적 발전에 힘 입어 컴퓨터와 기계의 세기에 이르기까지. 과거라는 이름으로 묘사되는 그 모든 시대가 낳은 유산, 즉 인물과 그것의 거대한 흐름이 느껴지는 국가, 사회, 법학, 제도 따위를 모두 애정한다. 예컨대, 역사라는 이름으로 통칠 수 있겠다. (물론 죽은 시대라는 표현과 역사라는 표현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역사라는 표현이 독자에게는 친근하게 다가가지 않겠는가?)

조선 — 죽은 시대 중에서도 가장 낭만이 있다고 평가하는 시기. 아마 조국의 과거이므로 접근성이 좋고, 기록이 많은 동시에 적당히 시대적 거리감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인 듯 하다.

생명 — 살아 숨쉬는 지상의 모든 것. 죽은 시대를 사모하면서도 호흡하는 것들 또한 사랑한다. 이 얼마나 모순인가! 생명의 흔적조차 아낀다. 속을 비운 깡통 같은 박제마저도 눈 여겨 보는 심성이다.

싫어하는 것

무생물 — 살아 숨 쉰 적이 없는 것들. 예를 들자면 바위, 책상, 보석, 창문, 전선 등. 살아 있던 흔적을 엿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무심하다. 그것이 경제 및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녔던지 간에. 혹자는 죽은 것은 사랑하면서 무생물을 미워하는 건 모순되지 않느냐 하겠지만, 무생물은 죽은 것과는 다르다. 죽은 것은 한때나마 호흡한 적이 있으나, 무생물은 날 때부터 호흡이 허락되지 않은 존재지 않은가.

취미

신문 정독 — 매일 아침 꼭 종이 신문을 받아 읽은 후, 세상이 말세라며 혀를 차준 후에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역사 다큐 시청 — 봤던 다큐멘터리도 돌려본다. 이제는 웬만한 다큐는 거의 다 외운 지경.

사료 조사 — 역사적 사료를 종종 조사해 자기만의 평을 남겨 둔다.

박제 수집 — 동물 박제를 수집한다. 생물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으는 편.

특기

장기와 바둑 — 할머니께 배웠다. 학주와 배틀 떠서 이겼다는 소문이 돈다.

한문 — 역시나 할머니께 배웠다. 한자검정시험 1급 자격증이 있다.

영어와 관화 — 세계사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 늘었다. 물론 회화와 발음은 안 되고 독해만 뛰어나다. 그조차도 성적을 받기 위해 단련한 것이 아니라, 해석이 정확할 뿐 빠르지는 않다.

속독 — 마음 먹고 읽으면 그 속도가 빠르다. 본인은 천천히 읽는 것을 즐겨 자주 쓰지는 않는 특기이지만.

언행 — 몸가짐은 언제나 바르게.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으며 산만하게 구는 법이 없다. 바닥에 앉는 자세도 정좌가 기본형이다. 쓰는 말에도 욕설이 없다. 가끔은 어려운 말도 쓴다. 이를테면 속담, 격언, 사자성어, 공좌알 땡자알 같은 것들…

성적 — 종합 성적은 백능고 하위권, 그러나 역사 과목은 백능고 1등.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등 역사 교과는 당연 탑이라고 보아도 무관하다. 문과 과목도 나름 중위권에 드는 편이지만 수학과 과학 점수가 매번 처참하다. 한번은 문제를 다 풀고도 전교에서 유일하게 0점을 받아 백능고의 수포자로 이름을 날렸다. (동시에 수학 선생에게 체벌을 받았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명문 백능고에서의 이야기일 뿐, 모의고사 성적에서는 의외로 선전한다. 평균 등급은 2.1등급, 수학과 5등급까지는 맞는다.

진로 — 목표는 인서울 사학과 진학. 이 성적으로는 인서울은 커녕 인대한민국도 못한다고 쿠사리를 먹지만 굴하지 않는다. 사학과 가면 굶어 죽는다는 핀잔에도 그럼 굶어 죽으면 되는 거 아니겠냐며 굴하지 않는다. 꿈은 무엇이나, 사학과 교수다. 할머니의 유지를 이어 받고 싶어한다.

부모님 — 중산층의 맞벌이 부모님. 덕분에 넓은 집, 맛있는 세끼 식사, 아낌없는 후원, 불화 없는 가족의 애정을 모두 누리며 살았으나 일로 바쁜 부모님이었기에 부모님과의 어린 시절 추억은 누리지 못했다. 그래도 기죽지 않는다! 그를 상회하고도 남을 외할머니와의 유년기가 있었으므로.

할머니 — 간간하며 고지식한 교육자 여성. 젊을 적 깨어 있는 하나의 지식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시대를 보냈고, 한 대학의 사학과 교수를 역임하다가 은퇴했다. 그 이후 태어난 유란의 유년기를 함께 한 할머니는 어린 유란이 느끼게 될 수 있었을 부모님의 공백을 빈틈 없이 채워주었다. 유란의 끈대 끼, 예의범절, 죽은 시대에 대한 애정, 복스럽게 먹는 모습은 이제 세상에 없는 할머니의 유산이다.

TMI

— 음식을 복스럽게 잘 먹는다. 아마 유년기를 할머니 밑에서 자란 영향인 듯. 얼마나 밥을 퍼주든 남김 없이 오물오물 남남남 꿀떡, 먹는 모습이 이뻐 급식실 직원들의 귀염둥이를 받고 있다. 맛 없는 음식도 잘 삼킨다. *마히다, 그히?* 하고, 간식거리를 달고 살지는 않지만 먹을걸 주면 사양치 않는다. 한번 먹을 때 제대로 많이 먹는 편. 참고로 최애 음식은 찹쌀떡.

— 반려동물이 하나 있다. 고등어 태비 고양이. 이름은 정철. 까칠하지만 나를 말하는 걸 잘 들어주는 편이다. 주인을 꽤나 닮은 듯 하지?

비공개란

비밀설정

죽음에 대한 애착 — 죽은 것들을 좋아한다. 정확히는 죽은 것들'만' 사랑할 수 있다. 이유는 알 수가 없다. 아마 기질적인 특징이겠거니. 심하지는 않지만 사체에 기질도 없잖아 있다.

인지 사유 — 알게 된 것은 9살 무렵 첫 반려동물인 고양이 금손이가 죽었을 때. 그전까지는 그러저럭 관심을 주고 나를 어울릴 뿐, 친근감이나 익숙함 외에 별다른 애착은 없었다. 금손이가 명을 다해 죽었을 때서야 영영 울었다. 생전에는 그렇게 울 만큼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죽으니까 정이 붙었다. 죽고 나서야 정을 붙일 수 있었다.

애정의 대상 — 죽은 것에 대한 애정은 범위를 가리지 않았다. 죽은 벌레도 애정하기에 치우지 못한다. 지금껏 기른 모든 반려동물의 시체도 감히 간직하고자 했다가 만류를 받았다. 아마 평생 증오해 마땅할 원수여도 그것이 시체가 된다면 사랑할 것이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신실한 예수의 종 같기도 하다. 원수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라니!) 생전의 관계나 거리감에 의해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건 간에 죽기만 했다면 모든 것을 애정하는 셈이다.

어떤 추한 욕정 — 유란은 애정이 좋다. 애정은 정말이지, 완벽하고도 행복한 동시에 추하고도 고통스러운 감정이다.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감정이다. 그래서 유란은 애정이 하고 싶다. 그렇다고 생명을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야 생명은 무한한 존엄을 지니는 법이니까. 그래서 기다릴 뿐이다. 이 영겁 같은 세월도 지나가기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죽어 애정할 수 있게 될 날이 다가오기를...

아둔한 감정선 — 잠깐 짤 이야기를 해보자. 사실 애정 외에도 이런 극단과 자극을 가진 감정은 많다. 이를 테면 분노라던가. 그런데 유란은 애정의 극단과 자극에만 진실로 열광한다. 이걸 유란이 여타 다른 감정에도 상당히 무딘 사람이라는 증명이지 않을까? 어쨌면 맹해 보이는 것은 일상 속 과한 자극에 넋을 놓은 것이 아니라 사실...

욕정의 허점 — 이 애정에도 역설점이 하나 있다. 죽고 나서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점이 살아있을 적 아끼지 못했다는 사실을 후회하지 않게 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우리는 뒤늦게서야 사랑을 깨닫고 후회하는 비련의 로맨스를 살면서 꽤나 자주 접하지 않았는가. 아마 이와 비슷한 맥락일 것이다. 그래, 사실 유란이 생명을 직접 죽여서라도 애정의 시기를 당기려 들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직접 죽이면 필시 애정을 시작했을 때 그 후폭풍이 지대할테니까. 처음으로 애정을 느꼈을 때와 동시에 깨달은 사실인데, 유란은 후회라는 감정을 딱히 달가워하지 않는다.

슈뢰딩거의 아가페 — 비틀린 애정관이 있어도 별다른 문제는 아직 없다. 죽지 않은 것에도 애정과 비스무리한 것은 느낄 수 있었으니까. (예를 들자면 친근, 편안, 안심, 온기 등.) 그리고 이런 감정들을 적극 활용해 살아있는 것들도 나를 사랑하며 살고 있다. 정확히는 그런 척하며 살고 있다. 그야 어차피 죽으면 다 사랑하게 될 존재들이니까. 죽고 나서

시작될 사랑, 조금 일찍 끌어다 써보자는 셈이다. 어라? 결국 현존하거나 현존했던 모든 것을 나름대로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하나의 신개념적 아가페인 듯 하다.

욕망

애정할만한 모든 것들이 죽기를 소망 — 그래야만이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게 될테니까. 타자의 단명과 자아의 장수를 꿈꾼다. 빨리 죽은 타자를 더 일찍 사랑하고, 자아의 장수가 이어지는 동안 그 사랑을 더 오래 만끽할 수 있도록.

공포

장수하는 것들 — 죽지 않은 것은 애정할 수가 없다. 유란은 애정을 하고 싶다. 그러므로 타자의 장수는 끔찍하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 대체 언제 내가 너를 애정할 수 있도록 해줄건데?

애정 없는 생명들의 세상 — 사람은 자신을 통해 남을 보는 법. 죽은 것만을 애정토록 허락된 자아는 결국 타자에게도 같은 공식을 적용한다. 머리로는 자신만이 예외일 뿐, 타자는 살아있는 것들 또한 애정할 수 있는 존재들임을 이해한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쉽지 않다. 사실 다른 사람들도 연기를 하는 것이며, 살아 있는 것을 애정하지 못하면서도 사랑하는 척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심은 끊이질 않는다. 이 세상은 실은 거짓된 사랑만이 잔존해있는 공간일까봐 서글퍼하며, 사람들이 모두 가면을 쓰고 있는 걸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 가면을 쓰고 유란을 대하는 것이 무섭다. 왜 지금 내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너도, 사실 거짓말을 하고 있는게 아닐까...